



## 취업자수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 고용률·경활률 3월 기준 역대 최고

-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업 중심 30만명대 증가세 유지 중
- 건설업·제조업 감소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등 어려움은 지속
- 민생안정 등 위한 추경예산 신속히 집행하고 「청년뉴딜 추진방안」 조속히 마련

① '26.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.7%로 전년대비 +0.2%p 상승했으며, 15~64세 고용률은 69.7%로 전년대비 +0.4%p 상승했다. 경제활동참가율은 64.6%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으며, 실업률은 3.0%로 △0.1%p 하락했다.

\* 3월 고용지표('25→'26년, %): <고용률> 62.5 → **62.7** <경활률> 64.6 → **64.6** <실업률> 3.1 → **3.0**

- 연령별로는 30대(81.0%, +0.6%p) · 40대(80.5%, +1.1%p) · 50대(77.3%, +0.7%p) · 60세 이상(46.5%, +0.1%p) 고용률이 상승했고, 청년층(43.6%, △0.9%p)은 하락했다.
- 15세 이상 경활률(경활률은 '25.3월과 공동 1위) · 고용률은 3월 기준 역대 1위이며, 15~64세 고용률도 3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다.

②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0.6만명 증가해 2개월 연속 20만명을 상회했으며, 1~3월 기준으로도 18.3만명 증가했다.

\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3)19.3 (9)31.2 (10)19.3 (11)22.5 (12)16.8 ('26.1)10.8 (2)23.4 **(3)20.6**

-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,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30만명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.

\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2)57.5 ('23)38.5 ('24)23.9 ('25)49.2 ('26.1)25.6 (2)37.4 **(3)31.6**

-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, 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(△10.5→△6.1만)은 감소폭 축소, 정보통신(△4.2→0.3만명) 증가 전환 등 최근의 조정 흐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.

- 운수창고(8.1→7.5만)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, 명절효과 종료 등으로 예술여가(7.0→4.4만)는 증가폭 축소, 도소매(2.3→△1.8만)는 감소 전환했다.
- 제조업(△1.6→△4.2만명)은 양호한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심리가 둔화되며 감소폭이 확대되었다. 반면, 건설업(△4.0→△1.6만명)은 완만한 건설경기 회복 흐름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.
- 지위별로는 상용직(15.8→14.0만명)·일용직(3.9→3.2만명)은 증가했으나, 임시직(0.8→△5.9만명)은 감소 전환했다.

③ 청년 고용률은 하락세를 지속했으나, 쉬었음 인구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.

\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3)45.5 (10)40.9 (11)41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 (3)40.2  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3) 6.1 (10)△0.9 (11)10.7 (12)10.0 ('26.1) 3.5 (2)△2.0 (3)△5.3

④ 4월 이후로는 중동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민생과 경제·산업 전반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, 정부는 민생 안정, 피해기업 지원 등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 청년의 취업,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, 일 경험 제공, 회복 지원 등 「청년뉴딜 추진방안」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.
- AX·GX 등 초혁신경제 구현, 지방주도 성장 등 우리경제 대도약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하는 등 고용 창출력 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.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재정경제부<br><총괄> | 민생경제국<br>인력정책과   | 책임자 | 과 장 | 김태웅 (044-215-8530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종운 (044-215-8532) |
| 고용노동부<br><공동> | 고용정책실<br>미래고용분석과 | 책임자 | 과 장 | 천경기 (044-202-7260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주봉 (044-202-7256) |

## 1. '26.3월 고용동향 특징

□ 고용률 62.7% (월간 역대 1위), 경제활동참가율 64.6% (월간 역대 1위), 실업률 3.0%, 취업자수 +20.6만명 증가

○ 15세 이상 고용률 62.7%로 +0.2%p 상승(역대 1위, '82.7월~), 15~64세 고용률 69.7%로 +0.4%p 상승(역대 1위, '89.1월~)

\* 고용률(15세+, %): ('25.2/4)63.5 (3/4)63.5 (4/4)62.7 ('26.1)61.0 (2)61.8 (3)62.7  
고용률(15~64세, %): ('25.2/4)70.2 (3/4)70.2 (4/4)70.0 ('26.1)69.2 (2)69.2 (3)69.7

○ 경제활동참가율 64.6%로 보합(역대 공동 1위, '99.6월~)

\* 경제활동참가율(15세+, %): ('25.2/4)65.4 (3/4)64.9 (4/4)64.6 ('26.1)63.6 (2)64.0 (3)64.6

○ 실업률은 3.0%로 △0.1%p 하락(<sup>3월 기준</sup>역대 최저 2위, '99.6월~)

\* 실업률(15세+, %): ('25.2/4)2.8 (3/4)2.2 (4/4)2.9 ('26.1)4.1 (2)3.4 (3)3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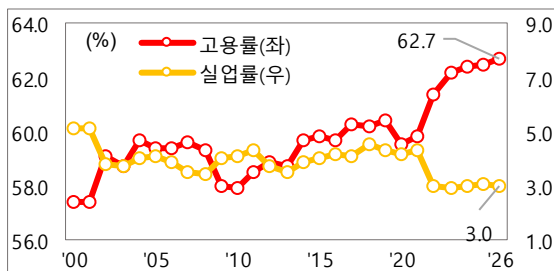
○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+20.6만명 증가

\* 취업자 증감(전년대비, 만명): ('25.2/4)20.7 (3/4)21.6 (4/4)19.5 ('26.1)10.8 (2)23.4 (3)20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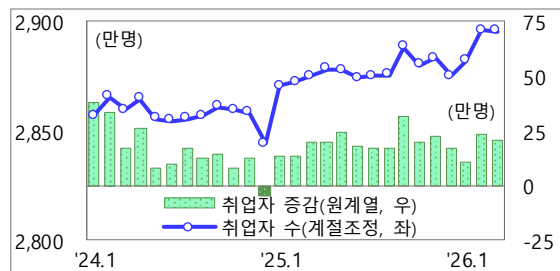
-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△0.1만명 감소

\*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(전월비, 만명): ('25.2/4) 4.2 (3/4) 2.8 (4/4)△0.2 ('26.1)6.9 (2)14.1 (3)△0.1

15세 이상 고용률·실업률(원계열, 매년 3월)



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(원계열, 계절조정, 전년대비)



□ (산업) 서비스업 증가폭 축소, 제조업 감소폭 확대, 건설업 감소폭 축소

○ (서비스) 30만명대 증가세 유지중이나 폭은 다소 축소(37.4→31.6만명)

\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대비, 만명): ('25.2/4)55.0 (3/4)51.1 (4/4)46.7 ('26.1)25.6 (2)37.4 (3)31.6

\* 공공복지 외 서비스(전년대비, 만명): ('25.2/4)29.5 (3/4)22.0 (4/4)20.9 ('26.1)11.2 (2)11.6 (3) 9.9

- 보건복지(28.8→29.4만)는 돌봄수요 증가, 노인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 효과 등 지속되며 취업자 증가

\* 보건복지 취업자(전년대비, 만명): ('25.2/4)22.2 (3/4)29.0 (4/4)26.0 ('26.1)18.5 (2)28.8 (3)29.4

- 운수창고(8.1→7.5만)는 증가세 지속. 다만 명절효과 소멸,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예술여가(7.0→4.4만) 증가폭 축소, 도소매(22→△1.8만) 감소 전환

\* 운수창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1.1 (3/4) 1.4 (4/4) 4.2 ('26.1) 7.1 (2) 8.1 **(3) 7.5**  
 도소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0.8 (3/4) 1.3 (4/4) 3.4 ('26.1) 2.3 (2) 2.2 **(3) △1.8**  
 예술여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0.7 (3/4) 4.1 (4/4) 6.2 ('26.1) 4.5 (2) 7.0 **(3) 4.4**  
 \* CSI(장기평균=100): ('25.10)109.6 (11)112.3 (12)109.8 ('26.1)110.8 (2)112.1 **(3)107.0**

- 전문과학(△10.5→△6.1만) 감소폭 축소, 정보통신(△4.2→0.3만) 증가 전환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조정 흐름이 다소 완화

\* 전문과학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11.1 (3/4) 5.0 (4/4)△1.9 ('26.1)△9.8 (2)△10.5 **(3)△6.1**  
 ↳전월비로는 '25.4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(전월비(만명): ('26.1)△3.2 (2)△1.6 (3)2.9)  
 정보통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4.7 (3/4)△0.4 (4/4) 0.9 ('26.1)△2.1 (2)△4.2 **(3)0.3**

- **(제조)** 양호한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, 중동전쟁 등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감소폭 확대(△1.6→△4.2만명)

\* 제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△9.1 (3/4)△6.7 (4/4)△5.2 ('26.1)△2.3 (2)△1.6 **(3)△4.2**  
 \* 일평균 수출 증가율(전년비, %) : ('24)8.1 ('25.9)△6.1 (10)13.9 (11)12.8 (12)8.6 ('26.1)13.8 (2)49.3 (3)41.9  
 \* 제조업 업황전망 BSI(장기평균=100): ('25.10)68 (11)71 (12)71 ('26.1)71 (2)72 (3)77 **(4)71**

- **(건설)** 건설경기 회복 흐름 등으로 감소폭 축소(△4.0→△1.6만명)

\* 건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△11.8 (3/4)△10.2 (4/4)△10.6 ('26.1)△2.0 (2)△4.0 **(3)△1.6**  
 \* 건설기성(전기비, %): ('25.1/4)△7.2 (2/4)△2.6 (3/4)△0.8 (4/4)△4.1 ('26.1)△7.8 **(2)19.5**

- **(농림)** 농가인구 감소 등 구조적 감소세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 기저효과('25.2월 △1.9→3월 △7.9만명) 등으로 감소폭 축소(△9.0→△5.8만명)

\* 농림어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△13.7 (3/4)△13.7 (4/4)△12.4 ('26.1)△10.7 (2)△9.0 **(3)△5.8**

## □ **(지위·연령) 상용직 비중 58.1%(보합), 청년층 제외 고용률 상승**

- **(지위)** 상용직 증가세 지속(+14.0만명) ·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, 임시직은 감소 전환(△5.9만), 일용직 증가폭 축소(+3.2만)

\* 상용직 비중(2월, %): ('00)30.3 ('05)34.9 ('10)42.5 ('15)48.5 ('20)54.7 ('25)58.1 **(26)58.1**  
 임금근로자 증감(2월→3월, 전년비, 만명): <상용>15.8→**14.0** <임시>0.8→**△5.9** <일용>3.9→**3.2**

- 비임금근로자(2.9→9.3만명)는 고용원有(6.0→10.5만명) 자영업자 증가, 무급가족종사자(△4.1→△1.2만명)는 감소폭 축소

\* 비임금 증감(전년비, 만명, 2→3월): <고용有> 6.0→**10.5** <고용無> 1.0→**0.0** <무급> △4.1→**△1.2**

○ (연령) 3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 상승, 청년층은 하락

| (3월 기준)       | 전체          | 청년          | 30대         | 40대         | 50대         | 60세 이상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인구(전년비, 만명)   | +24.1       | △16.2       | +8.3        | △11.3       | △6.3        | +49.5       |
| 취업자수(전년비, 만명) | +20.6       | △14.7       | +11.2       | △0.5        | +0.5        | +24.2       |
| 고용률(% , %p)   | 62.7 (+0.2) | 43.6 (△0.9) | 81.0 (+0.6) | 80.5 (+1.1) | 77.8 (+0.7) | 46.5 (+0.1) |

- 청년층 고용률(43.6%, △0.9%p) 하락, 실업률(7.6%, +0.1%p) 상승

| (%, %p) |     | '25년        | 2/4         | 3/4         | 4/4         | '26.1월      | 2월          | 3월         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고용률     | 청년  | 45.0 (△1.1) | 45.7 (△0.9) | 45.3 (△1.1) | 44.4 (△0.9) | 43.6 (△1.2) | 43.3 (△1.0) | 43.6 (△0.9) |
|         | 20초 | 43.6 (△1.5) | 44.5 (△1.5) | 44.8 (△0.8) | 42.6 (△1.3) | 41.3 (△2.0) | 40.3 (△2.0) | 39.8 (△2.5) |
|         | 20後 | 71.8 (△0.7) | 72.5 (△0.2) | 71.8 (△0.7) | 71.5 (△0.7) | 69.9 (△1.4) | 70.4 (△0.5) | 71.4 (△0.1) |
| 실업률     | 청년  | 6.1 (+0.2)  | 6.7 (+0.1)  | 5.1 (+0.2)  | 5.7 (+0.1)  | 6.8 (+0.8)  | 7.7 (+0.7)  | 7.6 (+0.1)  |
|         | 20초 | 6.6 (+0.3)  | 7.5 (+0.3)  | 5.3 (+0.7)  | 5.4 (△0.4)  | 6.5 (+0.3)  | 8.8 (0.0)   | 9.4 (+0.2)  |
|         | 20後 | 5.9 (+0.3)  | 6.4 (+0.2)  | 5.1 (+0.1)  | 5.8 (+0.2)  | 6.7 (+0.8)  | 7.1 (+0.8)  | 6.9 (+0.1)  |

- 청년층 쉬었음(40.2만명, △5.3만명)은 전년비 감소

\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3)45.5 (8)44.6 (9)40.9 (10)40.9 (11)41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 (3)40.2

◇ 일자리 어려움 겪는 '실업자+취업준비+쉬었음' 비중(3월 13.8%, 109.4만명)은 전년비 감소(△0.5%p, △6.4만명), 예년('21~'25년 평균 14.5%)보다 낮은 수준

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·취업준비·실업자 비중(3월 기준, %)

| (3월 기준, 만명, %) |          | 최근 5년 평균<br>(‘21~‘25) | ‘21          | ‘22          | ‘23          | ‘24          | ‘25          | ‘26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합계 (A+B+C)     | 수(인구내비중) | 120.5 (14.5)          | 142.8 (16.2) | 127.4 (14.8) | 116.0 (13.7) | 111.4 (13.5) | 115.8 (14.4) | 109.4 (13.9) |
| 실업자(A)         | 수(인구내비중) | 31.1 (3.7)            | 42.6 (4.8)   | 30.9 (3.6)   | 30.0 (3.5)   | 26.3 (3.2)   | 28.9 (3.6)   | 28.0 (3.6)   |
| 취준생(B)         | 수(인구내비중) | 48.3 (5.8)            | 58.7 (6.7)   | 54.2 (6.3)   | 45.2 (5.3)   | 44.8 (5.4)   | 45.4 (5.7)   | 41.2 (5.2)   |
| 쉬었음(C)         | 수(인구내비중) | 41.1 (4.9)            | 41.5 (4.9)   | 42.3 (4.9)   | 40.8 (4.8)   | 40.3 (4.9)   | 41.5 (5.2)   | 40.2 (5.1)   |

※ 청년층은 쉬었음 사유(노동시장적 사유, 경제활동 준비, 일시적 휴식 등), 구직의사 등 이질적 특성 보유

\* "쉬었음"은 비경활 활동상태 중 다른 명확한 유형(육아가사, 취업준비, 통학 등)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유를 모두 포괄하여 이질성이 높은 특성

\* 20~30대 쉬었음 사유('25.8월 비경활부가조사, %):  
(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)31.0 (건강)20.7 (다음일 준비)19.1 (일자리 없음)9.3

-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

\* 3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 0.9 (3/4)0.6 (4/4)0.2 ('26.1)0.5 (2)0.3 (3)0.6 [81.0%]  
4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 0.9 (3/4)0.7 (4/4)1.0 ('26.1)1.2 (2)1.2 (3)1.1 [80.5%]

- 5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60세 이상은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고용률 상승

\* 5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△0.2 (3/4) 0.1 (4/4) 0.3 ('26.1) 1.0 (2) 0.6 (3)0.7 [77.8%]  
60세+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 0.8 (3/4) 0.9 (4/4) 0.5 ('26.1) △0.5 (2) 0.5 (2)0.1 [46.5%]

## 2. 평가 및 대응

□ **취업자수**는 2개월 연속 **20만명대 증가**, **경활률·고용률** 역대 최고  
다만 **중동전쟁** 등 불확실성 확대 속 **제조·건설·청년** 등 어려움 지속

- 서비스업은 3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도소매·예술  
여가·운수창고 등 내수연관업종 중심으로 2월 대비 증가폭은 축소
  - 전문과학은 감소폭 축소, 정보통신은 증가전환 하는 등 최근  
지식기반서비스업의 조정 흐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
  - 보건복지업은 직접일자리 효과 등으로 증가세 지속
- 제조업은 양호한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, 기업심리 약화 등으로  
감소폭 확대, 건설업은 건설경기 회복 흐름 등으로 감소폭 축소
- 청년은 정보통신·숙박음식·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 
고용률 하락세 지속, 다만 쉬었음은 2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
  - \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3)45.5 (10)40.9 (11)41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 **(3)40.2**  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3) 6.1 (10)△0.9 (11)10.7 (12)10.0 ('26.1) 3.5 (2)△20 **(3)△5.3**
- 4월은 서비스업 중심 증가세 이어가겠지만, 중동전쟁 상황에  
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 상존

□ **중동전쟁에 따른 경제·민생 어려움 대응** 위한 **추경예산** 신속히 집행하고,  
「**청년뉴딜 추진방안**」 마련·발표 등 취약부문 고용상황 개선 노력 강화

- 중동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용의 하방요인이 되지 않도록  
민생안정·피해기업 지원 등 추경예산\*을 신속히 집행
  - \*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(수도권10만원, 비수도권15만원, 인구감소20~25만원), 수출 정책금융 공급(7.1조원) 등
- 청년의 취업·사회진출 지원 위해 취업역량 강화, 일경험 제공,  
회복지원 등 「청년뉴딜 추진방안」을 4월 중 마련·발표
- AX·GX 등 초혁신경제 구현, 지방주도 성장 등 우리경제 대도약  
위한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등 고용 창출력 개선노력 병행